

# 광주-대구 '2038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재확인



강기정 광주시장(오른쪽에서 네 번째)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5일 오전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민선 8기 달빛동맹 협약을 체결한 뒤 광주시, 대구시 간부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강기정·홍준표 시장 달빛동맹 강화 협약...대구시의회 긍정입장 선회 광주시의회 요구 '기본 조사 용역 보완·경제파급 용역 재조사' 과제로

광주시와 대구시가 2038년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약속을 재확인하면서 유치전에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부정적이었던 대구시의회까지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하고, 유치전에 힘을 보태고 나섰기 때문이다. 다만, 광주시의회측이 공동유치 준비위원회 재구성, 시민 여론조사 실시, 합동 공청회 등 3가지 선결 조건을 내걸고, 부실한 유치 용역 재조사 등을 요구하는 점은 부담이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5일 달빛동맹 강화 협약식을 열어 2038년 하계 아시안게임 성공 유치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두 시장은 협약서에서 "글로벌

홍보로 국가 위상을 높이고, 인적 물적 교류 촉진을 통해 스포츠 관광 발전 및 경제 활성화,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 하는 등 세계적인 공동개최의 모범 사례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고 약속했다. 두 지역 전임 시장이 추진했던 아시안게임 공동유치를 현 시장도 다시 약속한 것이다. 하지만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해서는 기본인 지역 내부 결속을 시작으로 대내외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수두룩하다. 광주시의 경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논란이 된 아시안게임 기본 조사 용역을 보완하고 시민 여론을 수렴해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부실 논란에 휩싸인 경제파급 효과 분석 용역 결

과 문제도 선결과제다. 광주시가 8000만원을 들여 실시한 '2038 하계 아시안게임 광주-대구 공동유치 기반조사 및 경제 파급효과 분석' 용역은 과업 지시서조차 없이 진행되고, 설문조사마저 부실하게 했다는 지적 등이 나오고 있어서다. 광주시의회는 용역비 회수와 용역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으며, 광주시도 재검증을 하고 있다. 광주시는 기반조성 용역을 전면 보완하는 한편 기반조사 용역을 바탕으로 한국스포츠정책연구원 이 진행 중인 사전타당성 조사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광주시의회도 일단 지난달 상임위를 통과한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동의를 분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정무창 시의회 의장은 공동유치 준비위원회 재구성하고 시민 여론조사 실시, 합동 공청회 등 3가지

선결 조건을 제시했으며, 광주시는 타당성 조사를 마친 뒤 대시민 보고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제행사 개최 계획서는 연말까지 대한체육회에 통보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서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 공동유치 동의를 시의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나마 대구시의 상황은 나은 편이다. 그동안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대구시의회가 지난 24일 상임위에서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동의를 조건부 가결했으며, 내달 15일로 예정된 시의회 분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의회는 앞서 지난 10월 17일 임시회에서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동의안 자체를 심사 유보하기로 한 바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무등산권-베트남권 세계지질공원 교류 강화 연구성과 공유·교육 추진 등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과 베트남권 세계지질공원이 운영 교류를 강화한다. 광주시는 "지난 22일 베트남 다농성에서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과 베트남 동반 카르스트(Dong Van Karst), 다농(Dak Nong) 등 2개 세계지질공원이 '세계지질공원 간 업무 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동반 카르스트는 수백만년을 거쳐 형성된 석고원(돌로 된 고원지대) 등 독특한 지질가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농은 7000년 전 부족민들이 살았던 화산동굴이 수백갈래로 나있는 화산지형이다. 이번 협약으로 무등산권과 베트남권 지질공원 간 연구성과 공유, 학술정보와 연구원 교류, 양국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주기적인 협력 회의 등 지질공원 운영을 위한 정책·사업 등이 확대될 예정이다. 송용수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베트남을 방문하는 세계 관광객에게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을 알리고, 광주시가 추진하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이 아시아권역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기획·개발·유통 원스톱 광주 실감콘텐츠큐브 개소

국내 실감콘텐츠 제작의 핵심 거점인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Gwangju Content Cube)가 지난 25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콘텐츠산업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GCC는 사용자의 몰입감·현장감 등의 극대화를 위해 인간의 오감, 나아가 느낌이나 감성까지 자극할 수 있는 첨단기술을 활용해 사용자에게 실감을 전달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작하고 체험하는 공간이다. GCC는 1만7913㎡ 부지에 지하 1층-지상 9층 연면적 2만346㎡ 규모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가 국비와 시비 900여억 원을 투입해 건립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시설을 갖춘 GCC는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연계로 빅데이터 기반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고, 실감콘텐츠 기획·개발·제작·유통까지 한번에 가능한 원스톱 시설과 시민 체험 공간 등을 갖췄다. GCC는 실감활영스튜디오(VX스튜디오)와 콘텐츠 유통을 기획 지원하기 위한 창작·전시·체험·교육공간인 와우랩(Wow Lab), 기업 입주공간, 공용장비실 등 콘텐츠 기획과 제작공간인 아하랩(Aha Lab)으로 구성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첨단기술 인프라와 문화가 결합할 때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성큼 나아가고 세계 속에 문화광주로 우뚝 설 수 있다"며 "광주실감콘텐츠큐브는 문화콘텐츠 기업과 시민 삶의 풍요로움이 무럭무럭 자라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전남 위기 가정 2988가구 신속 지원 도, 민·관 합동 일제조사...가구별 맞춤형 서비스

전남도가 지난 10월 말까지 두 달간 복지 위기 가구 제로화를 위해 민·관 합동 일제조사를 실시, 위기상황이 우려되는 2988가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했다. 이번 일제조사는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아·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녀회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위기정보 입수 대상자, 시군 자체 발굴자, 연락두절 가구 등 1만1028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일제조사를 통한 복지상당 결과 질병, 실직, 가족해체 등 위기상황이 우려되는 2988가구에 대해 ▲맞춤형복지급여 및 긴급복지 신청 ▲복지기동대 생활안정자금 지원 ▲통합사례관리 지원 ▲민간자원 연계 ▲생필품 지원 등 위기가구별 맞춤형 서비스를 했다. 위기상황이 우려되는 가구 중 건강, 주거, 경제 등 복합적 사려로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1626가구는 공무원, 아·통장, 생활관리사를 전남도 관리자로 지정해 사후관리 중이다. 이밖에 전남도는 연말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병행해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불일치한 1989명을 방문 조사하고 있다. 우홍섭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민관합동 일제조사를 통해 위험가구로 분류된 세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상시 위기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위기가구를 조기 발굴해 필요한 맞춤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9월부터 24시간 위기가구 지원 콜센터(120번)를 운영해 긴급복지 지원 6건, 통합사례관리 9건, 복지급여 신청 21건 등 위기가구를 적기에 발굴해 지원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에 힘쓰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농·어업 전기요금 불공정 인상 철회하라" 전국수산업생산자단체 비대위 결성 요금인상 대응

전기요금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전국의 수산업 생산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불공정한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전국의 수산업 생산자 단체는 최근 목포시 한국수산업경영인 전남도연합회 회관에서 전기요금 급격 인상 문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수산업생산자단체 불공정 농사용 전기요금인상 비상대책위원회' (이하 비대위)를 결성했다. 전국 단위 27개 수산업 생산자단체들이 참여하는 이번 비대위에는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이윤수 한국광어양식연합회 회장, 주홍준 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 회장, 박완규 한국수산중장자산업연합회 회장, 박영남 한국김산업연합회 회장 이종운 한국전북수산업연합회 회

장, 이윤수 경남어류양식협회 회장 등 8인이 공동 비대위원장을 맡았다. 이윤수 공동위원장 겸 집행위원장은 비대위 결성식 자리에서 "행평성 없는 전기요금의 정액 일률 인상으로 농사용 전기요금이 다른 용도별 전기요금에 비해 인상율이 너무 높아, 생존권 위기에 몰리고 있다. 반드시 시정되도록 모두가 역량을 집중해 주시길 요청한다"면서 "농사용 전기요금 급격 인상 시정을 위해 항후 시설하우스 등의 농업 단체들과 힘을 모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수산업경영인회 등 전남 지역 수산단체 회원 50여명은 지난 4일 완도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봄에 떠나는 그로운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레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 예약센터: 메이투어: 062-385-0515 | 투어나우: 062-575-8019

#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전원 리모델링**

**칼라강판 지붕공사**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징크판설시공**

**창호(샷시)교체**

**농막**

**옥상스틸방수**

MODERN M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 북구 자미로45(신안동) | 공장: 광주 서구 서항2길3(서항동)